

일반 연제

5월 24일 (토)

당뇨병성 혈액투석 환자에서 동정맥루 조기 기능부전이 심혈관 사망율에 끼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옥, 윤선애, 김병수, 신영신, 이승현, 진동찬, 김용수, 장윤식, 방병기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동정맥루 기능부전이 흔하게 발생하는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정맥루 수술부위의 혈관 상태 불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성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동정맥루 기능부전이 심혈관 사망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보고가 없다. 이에 연자들은 당뇨병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동정맥루 조기 기능부전이 심혈관 사망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하였다.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 받은 당뇨병성 신부전증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정맥루 기능부전을 조사하고 2002년 12월까지 심혈관 사망율을 조사하였다. 전체 환자를 동정맥루 조기 기능부전군과 개통군으로 나누어 두 군간에 심혈관 사망율을 Kaplan-Meier 방법과 log rank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심혈관계 이외의 사망과 추적 관찰 소실은 censored data로 처리하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 ± 11 세이었고 남자는 57명 (39.6%)이었다. 전체 144명 환자 중 동정맥루 조기 기능부전은 68명에서 발생하였다 (47.2%). 평균 32 ± 20 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심혈관 사망은 62명 (43.1%)에서 발생하였다. 동정맥루 조기 기능부전군 ($n=68$)의 추적 관찰기간은 개통군 ($n=76$)에 비해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짧은 경향을 보였다 (29 ± 17 vs. 35 ± 22 개월, $p=0.07$).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조기 기능부전군은 개통군에 비해 급성 심근경색증 (13.2% vs. 3.9%, $p=0.044$), 울혈성 심부전증 (70.5% vs. 13.1%, $p<0.001$), 말초동맥질환 (20.5% vs. 3.9%, $p=0.002$)의 발생빈도가 각각 높았다. 조기 기능부전군의 심혈관 사망률은 개통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년; 54.6% vs. 24.6%, 5년; 77.0% vs. 42.3%, $p=0.005$). 결론적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당뇨병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동정맥루 조기 기능부전은 심혈관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